

‘-었느’의 통시적 연구

안 예 리

이 연구는 ‘-었느’의 용례를 통시적으로 검토해 그 발생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소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선 연구에서 ‘-었느’는 근대국어 시기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쓰였다. ‘-었느’의 ‘-었느-’는 중세국어의 상태지속상 ‘-어 잇-’이 ‘-느-’와 결합된 것에 기원을 둔다. 19세기를 전후해 ‘-었-’의 과거시제 의미가 강화되면서 ‘-었-’과 ‘-느-’가 의미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었느-’와 ‘-었-’의 의미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었느-’의 분포는 축소되어 갔다. 서술구성에서는 ‘-었느-’가 ‘-었-’으로 대체된 후에도 ‘-었-’과 ‘-∅-’의 대립이 유지된 반면 관형구성에서는 ‘-었느’와 ‘-은’만 존재할 뿐 ‘*었은’은 존재하지 않아 ‘-었-’과 ‘-∅-’의 대립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었느-’가 사라지면서 ‘-었-’에 의한 시제 표시가 불가능해졌고 기존의 방식대로 ‘-느-’의 유무로 시제를 표시하게 되었다.

핵심 어휘: -었는, -었느-, -었-, 시제, 관형절

1. 서론

이 글은 ‘-어 잇-’이 ‘-었-’으로 문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형구성의 ‘-었느’에 대한 연구이다. ‘-었-’의 문법화는 현대국어 서술구성과 관형구성의 시제 체계에 차이를 가져온 결정적인 현상이었다. 중세국어에서는 ‘-느-’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그 부재형 ‘-∅₁-’이 과거시제를 나타냈는데 과거시제 ‘-었-’의 등장으로 국어의 시제는 ‘-었-’과 그 부재형인 ‘-∅₂-’의 대립을 통해 실현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¹⁾. 하지만 이는 서술구성에 국한된 설명으로 오늘날 관형구성에서는 여전히 ‘-느-(<-느-)>’와 ‘-∅₁-’의 대립이 유지되고 있다²⁾.

1) 이 글에서는 ‘-느-’의 부재형을 ‘-∅₁-’으로, ‘-었-’의 부재형을 ‘-∅₂-’로 부르되 다른 연구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연구의 지칭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날 관형구성의 시제 체계는 15세기와 동일하지만 역사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관형구성의 과거시제 표시 방법이 오늘날과 달랐던 것이다. 최동주(2002나: 510, 530)에서는 ‘-었는’이 전기 근대국어에서 이미 소멸 단계에 있었다고 했지만 (1)에서 볼 수 있듯이 1920~1930년대 자료에서도 ‘-었는’의³⁾ 용례가 확인된다.

- (1) 가. …爲先 조선만으로 불지라도 이 운동의 유래와 근거가 자못 깊혔는 것을 認할 수가 있다. <개벽 63, 56>
 나. 한 번도 결격결격하게 대담하게 살아 보지를 못한 나의 생활에는 무엇 시원한 윤패를 느낀 때가 엮섯는 동시에 여시 특특한 창피를 당해 본 기억도 없다. <별건곤 7, 136>
 다. 속에 감추었는 불평과 불만이 제 각각 올흔 이유를 가지고 터지어 나왔다. <동광 10, 72>
 라. 누었는 순간 다시 잠에 빠지려 하엿다. <삼천리 4.12, 94>

(1가)와 (1나)는 형용사 ‘깊다’, ‘없다’에 ‘-었는’이 결합된 예이고 (1다)와 (1라)는 동사 ‘감추다’, ‘눅다’에 ‘-었는’이 결합된 예이다. (1)에서 ‘-었는’과 결합한 용언들은 (2)에서처럼 당시 ‘-은’과도 결합돼 쓰였다.

- (2) 가. 대저 間島는 倍達나라 예터의 일부분임과 동시 우리와는 꼭 깊흔 관계와 인연이 잇는 지대이엿다. <개벽 13, 67>
 나. 비록 城中에 잇스면서도 피차에 내왕이 엮흔 까닭에 그 소식을 전연 몰랐던 나는 천만 뜻밖게 그런 말을 드르매 놀납기도 하고 또 한 쪽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적지 안했다. <별건곤 1, 89>
 다. 힌 뺨에는 맑고 붉은 빛이 떠오르고 입은 표정을 감춘 미소로 움치거리고 눈은 정처 없이 번쩍이엿다. <동광 34, 75>

- 2) 관형질의 시제와 관련해 ‘-더-’와 ‘-느-’와 ‘-∅₁-’이 대립을 이룬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리말의 시제 체계를 상황시와 인식시의 이원적 체계로 파악한 한동완(1996)을 따라 ‘-느-’는 상황시를 나타내고 ‘-더-’는 인식시를 나타낸다고 본다. 즉, ‘-느-’와 ‘-더-’는 시제 체계에서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며 제각각 영형태와 대립 관계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 3) ‘-었는’의 ‘-느-’는 ‘-느-’가 형태 변화를 겪은 결과로 20세기 전반기 자료에는 거의 대부분 ‘-느-’로 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예를 언급할 때에는 ‘-느-’, ‘-었느-’, ‘-었는’을 사용하되 중세근대국어에서의 쓰임과 20세기 전반기의 쓰임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편의상 ‘-느-’, ‘-었느-’, ‘-었는’으로 부른다.

라. 현관을 지나 복도 오른쪽으로는 그야말로 전염병실다운 독방들이 있스나 내가 누운 곳은 床 일곱이나 노히는 넓다란 방이었다. <삼천리 3.10, 76>

(2)에 쓰인 ‘깁흔’, ‘업슨’, ‘감춘’, ‘누운’은 (1)에 쓰인 ‘깁헛는’, ‘업섯는’, ‘감추엇는’, ‘누엇는’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⁴⁾.

지금까지 ‘-엇-’에 대한 논의는 서술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문법화 과정도 상세히 밝혀져 왔다. 하지만 (1)과 같이 관형구성에 쓰인 ‘-엇-’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2)와 같이 ‘-은’만으로도 관형절의 과거시제를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1)과 같은 쓰임이 허용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엇는’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 그리고 ‘-엇는’은 왜 결국 사라지게 됐을까? 이 연구에서는 15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의 문헌에 나타난 ‘-엇는’의 용례를 분석해 ‘-엇는’의 통시적 변화를 기술하고 위의 물음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엇는’의 발생과 변화

‘-엇는’의 용례는 ‘구스를 바갓는 腰極이 便安호야 모매 맛도다 <초간두시언해 11, 17뒤>’에서처럼 15세기부터 나타났다. 그런데 이 예에서 ‘구스를 바갓는’은 과거에 누군가가 구슬을 박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옷에 구슬이 박혀 있다는 뜻이다. 이때 ‘-엇-’은 ‘-어 잇-’의 변이형이다.

이기갑(1981)은 중세국어의 ‘-어 잇-’이 상태지속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상태지속상의 개념은 동사의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과 형용사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포괄한다. 오늘날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어 잇-’이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에도 결합됐는데 이러한 결합은 당시 ‘-어 잇-’이 일정한 상태의 지속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⁵⁾.

4) 오늘날에도 동남방언에서는 ‘-엇는’이 쓰이고 있는데 남기심(1978: 40-41)은 이를 공식적 음운규칙의 필수성 여부로 설명하였다. 중부방언에서는 ‘-엇는’에서 ‘-은’으로 바뀌는 형태음운론적 규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만 동남방언에서는 수의적으로 적용돼 ‘은 사람’을 ‘왔는 사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영근(2007: 444)은 통시적 변화를 고려해 이러한 현상을 중세어의 잔재로 설명하였다.

5) 이기갑(1981)의 ‘상태지속상’이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된 ‘-어 잇-’의 상적 의미를 포괄한 것인데 반해 박진호(2006)은 형용사에 결합된 ‘-어 잇-’에 한정해 그 상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즉, ‘-어 잇-’이 결합되지 않은 예에서 형용사는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상태

중세국어의 ‘-어 잇-’이 상태지속상을 나타낸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구스를 바깥 腰被’의 예에서처럼 피동문으로 실현되어야 할 구문이 능동문으로 실현된 것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이 예에서 구슬은 이미 박혀 있는 상태이므로 오늘날이라면 ‘구슬이 박힌’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상태지속상의 ‘-었-’을 통해 ‘구슬을 박는 동작이 끝난 다음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피동문으로의 전환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태지속상의 ‘-어 잇-’은 ‘-엿-’으로 축약되었다가 ‘-엇-’으로 변했는데 중세국어 관형구성에는 ‘-어 잇-’, ‘-엿-’, ‘-엇-’의 세 형태가 모두 쓰여 ‘-어 잇는’, ‘-엿는’, ‘-엇는’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동완(1986)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세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앞에 ‘-어 잇-’으로 쓰인 예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이하 세종)》의⁶⁾ 15~16세기 자료에서 각 변이형의 용례를 계량화해 본 결과 ‘-는’ 관형절에 쓰인 ‘-어 잇-’의 빈도는 59였지만 ‘-엿-’과 ‘-엇-’의 빈도는 각각 243, 177로 ‘-엿는>-엇는>-어 잇는’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세국어 관형구성의 상태지속상은 대개 ‘-엿-’이나 ‘-엇-’을 통해 실현됐는데 후대로 오며 ‘-엿-’의 쓰임은 축소되고 ‘-엇-’의 쓰임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보다 분명한 수치로 보이기 위해 《세종》의 용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시에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의 쓰임을 비교하기 위해 15~16세기 자료와 17~19세기 자료를 따로 분석했는데 《세종》에 포함된 15~16세기 자료의 총 규모는 약 90만 어절이고 17~19세기 자료는 약 230만 어절로 규모의 차이가 컸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각을 300만 어절로 가정하고 빈도를 정규화했다⁷⁾.

<표 1>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엿는’과 ‘-엇는’의 쓰임

	《세종-중세》		《세종-근대》	
	정규화 빈도	백분율	정규화 빈도	백분율
-엿는	810	57.9%	187	19.1%
-엇는	590	42.1%	789	80.9%
합계	1,400	100%	976	100%

를 나타내지만 ‘-어 잇-’이 결합된 예에서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6) 《세종》에 포함된 문헌의 목록은 국립국어원(2007: 595-632)에 밝혀져 있다.
- 7) 정규화하기 이전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세종-중세》 ‘-엿는(243)’, ‘-엇는(177)’, 《세종-근대》 ‘-엿는(143)’, ‘-엇는(605)’.

위의 표를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엿느’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정도였지만 근대국어로 오면 ‘-엿느’이 ‘-엿느’보다 네 배 이상 많이 쓰였다. 그런데 근대국어 ‘-엿느’의 예는 모두 『중간두시언해』에 쓰인 것이었다. 근대국어의 다른 문헌에서는 ‘-엿느’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중간본에 쓰인 ‘-엿느’은 당시의 일반적인 쓰임을 보여준다기보다 초간본의 형태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근대국어에서는 ‘-엿느’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은 17세기 자료에 나타난 ‘-엿느’의 예이다.

(3) 가. 줍ㄴ 랏느 고기는 므리 健壯호를 슬코 느라가는 새는 구루미 기푸를 붓놋다
 <중간두시언해 25, 4뒤>

나. …니는 柯雪이 버렸느 듯하고 눈섭은 垂楊이 싸여난 듯호도다 <박통사언해 중, 23앞>

다. 大明殿 앞 月臺 우희 네 모히 섯느 네 將軍이 애 더 身材여 身長이 六 尺이오
 허리 너르기 세 아람이나 하니… <박통사언해 하, 31앞>

라. 弟兄 세네히 기동을 덕희여 안잣느 거시여 <박통사언해 상, 38앞>

마. 窓의 버므렸느 흰 듬비즌 빗난 기비 드렸느 듯도다 <중간두시언해 15, 45 뒤>

(3가)의 ‘줍ㄴ’은 ‘잠겨 있는’을 뜻하고 (3나)의 ‘버렸느’은 ‘벌려 있는’을 뜻하고 (3다)의 ‘섯느’은 ‘서 있는’을 뜻하고 (3라)의 ‘안잣느’은 ‘앉아 있는’을 뜻하고 (3마)의 ‘버므렸느’은 ‘걸려 있는’을 뜻한다. 이처럼 ‘-엿-’이 ‘-어 잇-’의 상태지속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현재시제 ‘-느-’와의 결합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엿느’의 ‘-엿-’이 상태지속상을 나타낸 예는 18세기에도 널리 나타났다.

(4) 가. 일이 급하니 낭즈는 그 넙엇느 오솔 수이 버스라 <낙선재 필사본 형세언 5, 122>

나. 드딕여 췌느 옥지환을 벗겨 줘고… <낙선재 필사본 빙빙던 3, 107>

다. 구룡이 … 유용의 가졌느 부채를 달나 호야 반복호야… <낙선재 필사본 형세언 5, 128>

라. 길ㄴ의 섯느 나모 우희 큰 새집이 잇거늘… <낙선재 필사본 후슈호던 12.17, 130>

마. 문득 호 가의 사람이 돌너 모닷느 양을 보고 나아가 보니… <낙선재 필사본 후슈호던 12.18, 149>

(4가)의 ‘넋었는 옷’은 발화 당시에 입고 있는 옷을 뜻하고 (4나)의 ‘꺾는 옥지환’은 끼고 있는 옥지환을 뜻한다. (4다)의 ‘가졌는’은 ‘가지고 있는’을 뜻하고 (4라)의 ‘꺾는’은 ‘서 있는’을 뜻하며 (4마)의 ‘모닷는’은 ‘모여 있는’을 뜻한다. 이들 예에서 ‘-었-’은 상태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근대국어 관형구성에 쓰인 대부분의 ‘-었-’은 상태지속상을 나타냈지만 (5)와 같이 상태지속상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예도 있었다.

- (5) 가. 비록 父母ㅣ 아니라도 當時에 家長이 되엇는 이면 또 맞당히 忝稟하고 行하
면 號令이 혼 사람의 나셔 家政이 비로소 可히 실어곰 治하리라 <가례언해
2, 3앞>
나. 물읏 겨집 죽식이 되엇는 재 만일 겨집 스승의 ㄱㄹ치를 드러 아름다운 말슴
을 드리디 아니흐 즉… <여훈언해 상, 37>
다. 다몬 사람이 天地間에 나 맞당히 사람 되엇는 道理를 다흐 써시니… <오륜
전비언해 7, 22뒤>

(5)의 예는 모두 ‘되-’에 ‘-었는’이 결합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4)의 ‘입다’, ‘끼다’ 등의 동사들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다가 완료되는 것이 어휘 의미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되다’의 경우는 어휘의 의미가 순간적인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오늘날의 직관으로는 (4)의 예들과 상적 해석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었-’은 어떤 동작에 대한 완료상뿐 아니라 상태의 지속도 나타냈기 때문에 (5)의 예에 쓰인 ‘-었-’ 역시 상태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대국어의 용례 중에는 ‘-었는’의 ‘-었-’이 상태지속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예들도 있었다. (6)은 ‘-었는’이 이동동사에 결합된 예이다.

- (6) 가. 江東에 갔는 아을 보디 못하야 노푼 노래에 눈물 두어 주를 흘류라 <중간두
시언해 11, 3뒤>
나. 뉴청이 ㄸ터로 헤터 드러와 구병이 왔는 줄을 니룬대… <낙선재 필사본 북
송연의 5, 275>
다. 호연찬이 대로 왓, ……“왔는 도적은 엇던 쟤다?” 당길이 응성 답왓, … <낙
선재 필사본 북송연의 1, 12>
라. 원위 왕마와 사괴야 빅운산의 올나갔는 일을 니르고… <낙선재 필사본 후슈
호던 12.18, 160>

(6가)의 ‘갓느’는 발화 시점에도 아이가 강동에 있다면 상태지속상으로 해석될 것이고 발화 시점에서의 소재와 무관하게 과거에 강동으로 갔다는 사실만을 나타낸 것이라면 과거시제로 해석될 것이다. 하지만 (6나)의 ‘왓느’이나 (6다)의 ‘왓느’는 문맥상 발화 시점에 각각 ‘구병’, ‘당길’이 화자가 있는 곳에 와 있는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상태지속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6라)의 ‘올라갓느’의 ‘-엇-’은 앞뒤 문맥을 통해 볼 때 과거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6라)의 상황은 왕마와 함께 빅운산에서 지내던 원무가 산에서 내려와 손본과 마룻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다. ‘올라가-’의 동작이 종결된 상태가 발화시점에 더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으므로 상태지속상이 아닌 과거시제로 해석된다.

‘-엇느’의 ‘-엇-’이 과거시제를 나타낸 경우 ‘-느-’와의 결합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인다. 과거시제의 선어말어미가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형질의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엇느’에 대해서는 (7)과 같이 그동안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7) 가. ‘-엇느’를 ‘-엇느-’와 ‘-은’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

나. ‘-엇느’를 ‘-엇-’과 ‘-느-’와 ‘-은’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

다. ‘-엇느’를 ‘-엇-’과 ‘-느’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

첫째, (7가)의 관점은 이승욱(1973), 이현희(1982), 임동훈(1995), 한동완(1996), 문숙영(2009) 등에서와 같이 ‘-엇느-’를 ‘-엇-’의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엇느’의 발생과 소멸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엇-’과 ‘-느-’의 결합은 기원적으로 ‘-엇-’이 상태지속상의 의미를 가질 때에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엇-’의 의미가 점차 과거시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일정 시기 동안은 기존의 형태적 결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동완(1996: 96)은 중세국어에서의 ‘-어 잇느-’나 ‘-엿느-’의 결합은 정상적이었지만 ‘-엇-’이 과거시제성을 확보한 이후의 ‘-엇느-’의 결합은 ‘-엇-’이 갖는 [상황시의 전시성]과 ‘-느-’가 갖는 [상황시의 동시성]이 충돌하게 되므로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엇-’의 과거 시제성이 강화됨에 따라 ‘-엇느-’의 결합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따른다.

임동훈(1995: 96)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과거시제 표시의 방법 중 ‘-엇-’에 의한 방법은 서술구성에 정착했고 ‘-Ø-’에 의한 방법은 관형구성에 남았으며 ‘-엇느-’에 의한 방법은 ‘먹엇느냐>먹었느냐’와 같이 의문형에 화석화된 형태로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대국어 화자들에게 ‘먹었느냐’는 의고적인 쓰임으로 여겨지고 일반적으로는 ‘먹었냐’로 쓰기 때문에 의문형에 남아 있는 ‘-었는-’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에 의문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20세기 전반기에는 관형구성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한다. 당시 ‘-었는’과 ‘-은’이 공존하고 있었고 ‘-었는’은 결국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둘째, (7나)의 관점은 고영근(2007) 등에서와 같이 ‘-느-’를 시제로 보지 않고 직설법 어미로 보는 것으로 ‘-었는’을 관형절의 직설법 과거로 분석한다. (7가)의 관점에서는 ‘-었-’이 과거시제로 발달해 감에 따라 ‘-었느-’의 결합에 의미적 충돌이 생겼다고 보지만 (7나)의 관점에서는 ‘-었느-’는 과거시제와 직설법의 결합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고영근 2007: 384). 하지만 ‘-었느-’의 결합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후대로 오며 ‘-었느-’가 왜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점에서는 ‘-었느-’가 ‘-었-’의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형태라는 (7가)의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느-’를 직설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시제와 서법이 실현되는 자리를 따로 설정해 ‘먹다’를 ‘먹+ $\varnothing_2$ + $\varnothing_6$ +다’로 분석하는데 이때 ‘- $\varnothing_2$ -’의 자리는 시제 형태소의 자리이고 ‘- $\varnothing_6$ -’의 자리는 서법 형태소의 자리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에 따르면 ‘먹는’은 ‘먹+ $\varnothing_2$ +느+ㄴ’으로 분석되고 ‘먹은’은 ‘먹+ $\varnothing_2$ + $\varnothing_6$ +은’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보면 ‘먹는’과 ‘먹은’의 차이는 직설법 형태소의 실현 여부로 설명된다. 하지만 ‘먹는’과 ‘먹은’은 서법적 차이를 갖는 게 아니라 시제적 차이를 갖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의미의 차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방법에는 ‘- $\varnothing_2$ -’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술구성의 ‘먹는다(먹+ $\varnothing_2$ +느+ㄴ다)’에서는 ‘- $\varnothing_2$ -’가 현재시제를 나타내지만 관형구성의 ‘먹은(먹+ $\varnothing_2$ + $\varnothing_6$ +은)’에서는 ‘- $\varnothing_2$ -’가 과거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영형태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리에서 대립하는 형태소에 대한 결여형으로서 설정되는 것인데 관형구성의 ‘- $\varnothing_2$ -’는 그것이 대립하는 형태소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보다는 ‘-느-’를 시제 형태소로 보고 관형구성에서는 중세국어처럼 ‘-느-’와 영형태의 대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내포절이 주절보다 언어 변화에 대해 더 보수적인 양상을 띠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7다)의 관점은 허웅(1982) 등에서처럼 과거시제 ‘-었-’에 후행하는 ‘-는’을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었느-’가 분석될 수 있는 ‘먹느냐/먹었느냐’, ‘예쁘냐/예뻤느냐’ 등에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느-’를 어미의

일부로 보는 여타의 견해들과도 상통한다. 임동훈(1995: 93)의 지적처럼 이러한 관점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태를 ‘-었-’으로 단일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해당 어미들의 분포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허웅(1982: 31)은 19세기 들어 ‘-느-’의 형태가 동요하며 맺음씨끝으로 녹아 붙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고 그 예의 하나로 ‘-었느’의 ‘-느’를 들었다. 하지만 만약 ‘-었느’의 ‘-느’가 ‘-는데’, ‘-는고’ 등 다른 어미들처럼 하나로 굳어진 형태였다면 왜 오늘날 ‘-었는데’, ‘-었는데’는 가능한데 ‘-었는’은 불가능한가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와 달리 ‘-었느’의 ‘-느’는 하나의 어미로 굳어지지 않은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었느-’가 ‘-었-’의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형태였다는 (7가)의 관점을 따른다. 다음 절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자료에 나타난 ‘-었는’의 용례를 분석해 ‘-었는’이 사라지기 직전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20세기 전반기 ‘-었는’의 쓰임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어 잇는’에서 유래한 ‘-었는’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주로 관형절의 상태지속상을 나타냈지만 일부 용례에서는 과거시제를 나타내기도 했다. 상태지속상을 나타내든 과거시제를 나타내든 일부 방언을 제외하면 오늘날 ‘-었는’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여러 자료에 걸쳐 ‘-었는’의 예가 두루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세기 전반기 ‘-었는’의 용례는 그 마지막 단계의 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20세기 전반기에도 ‘-었는’은 여전히 관형절의 상태지속상을 나타냈다.

- (8) 가. 그 뒤로서 一群의 사관생도가 몰려 나오드니 그 대부분이 우리 안젓는 숙직실로 온다. <삼천리 2.7, 7>

나. 계모는 밥상을 마루 밑 부엌에 šet는 딸에게 내어 주드니... <동광 33, 42>

다. 이 세상에서는 어더 볼 수 업는 어엿분 녀자 섬섬옥수에 꽃을 쥐고 드러누엇

8) 20세기 전반기의 문법을 기술한 최현배(1937: 618-619)에서는 어떤꼴의 지난적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었는’을 쓰는 방법과 ‘-은’을 쓰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죽었는 범’과 같이 쓰는 것은 옛적법으로 사용 범위가 좁고 ‘죽은 범’과 같이 쓰는 것은 이제법으로 사용 범위가 넓다고 하였다.

는 나에게 미소(微笑)를 던진다. <별건곤 8, 31>

(8가)는 ‘앉다’에, (8나)는 ‘서다’에, (8다)는 ‘드러눕다’에 ‘-었는’이 결합된 예로, 상태지속상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쓰임은 여전히 중세국어의 용법이 계승된 결과인데 오늘날에는 ‘-어 있-’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20세기 전반기 자료 중 ‘-었는’의 ‘-었-’이 상태지속상의 의미를 나타낸 예를 분석해 보면 ‘-었는’이 결합된 용언이 (8)에 쓰인 것처럼 특정 동작이 이루어지다 일정한 기점을 기준으로 그 동작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상태로써 지속될 수 있는 유형의 동사들이 상당수였다⁹⁾.

20세기 전반기에 ‘-었는’은 이처럼 중세국어의 용법을 간직하고 있던 한편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용법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갔다. 이는 ‘-었는’의 분포 확대를 통해 증명된다.

근대국어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던 ‘-었-’은 동사에만 결합되었는데 최동주(2002나: 512)에서는 ‘-었-’이 형용사나 ‘이다’와 결합하는 쓰임은 개화기 이후에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세종》에 나타난 용례 중 ‘-었는’이 형용사에 결합된 예는 ‘ᄃᆞᄫᆞᆫ다’에 결합된 ‘ᄃᆞᄫᆞᆫᆫ’뿐이었고 ‘이다’에 결합된 예는 보이지 않았다. ‘가ᄃᆞᆫᆫ’은 『중간두시언해』, 『두창경험방』, 『권념요록』 등에 나타났는데 ‘지ᄃᆞᆫ ᄃᆞᄫᆞᆫᆫ 처즈 <권념요록, 11앞>’에서처럼 이때 ‘가ᄃᆞᆫ다’는 분명 형용사로 쓰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쓰임은 한 단어에 국한된 것이었고 ‘-었는’의 분포가 형용사 전반과 ‘이다’ 뒤로 확대된 것은 20세기 이후였다.

<표 2>는 중세국어, 근대국어, 20세기 전반기 말뭉치에 나타난 ‘-었는’의 용례 중 동사에 결합된 예, 형용사에 결합된 예, ‘이다’에 결합된 예를 분석해 각각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용례는 《세종》에서 추출하였고 20세기 전반기 용례는 대중잡지 『삼천리(1929-1942년)』로 구성된 약 290만 어절의 《삼천리 말뭉치(이하 삼천리)》에서¹⁰⁾ 추출하였다. 《세종》의 15~16세기 자료와 17~19세기 자료, 그리고 《삼천리》는 그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빈도의 비교를 위해 각 말뭉치의 크기를 300만 어절로 가정하여 빈도를 정규화하였다¹¹⁾.

9) 이 연구에서는 용언의 어휘상적 특성에 따른 ‘-었-’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10) 《삼천리》의 구축 방법과 장르 구성은 안예리(2013: 14-26)에 기술돼 있다.

11) 정규화하기 이전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세종-중세》 동사(177), 《세종-근대》 동사(599), 형용사(6), 《삼천리》 동사(163), 형용사(32), 이다(11).

<표 2> ‘-엇느’에 선행하는 용언의 품사¹²⁾

	《세종-중세》		《세종-근대》		《삼천리》	
	정규화 빈도	백분율	정규화 빈도	백분율	정규화 빈도	백분율
동사	590	100%	781	99.0%	169	79.2%
형용사	0	0%	8	1.0%	33	15.5%
이다	0	0%	0	0%	11	5.3%
합계	590	100%	789	100%	213	100%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세종-중세》에서는 ‘-엇느’의 모든 용례가 동사에 결합된 것이었고 《세종-근대》에서는 ‘-엇느’의 전체 용례 중 99%가 동사에 결합된 것이었다. 그에 반해 《삼천리》에서는 형용사에 결합된 예가 15.5%, ‘이다’에 결합된 예가 5.3%였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엇느’의 분포 환경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¹³⁾.

(9)는 1920~1930년대에 발행된 잡지에 나타난 ‘-엇느’의 용례 중 형용사에 결합된 것이다.

(9) 가. …爲先 조선만으로 불지라도 이 운동의 유래와 근거가 자못 깊혔는 것을 認할 수가 있다. <개벽 63, 56>

나. …英國의 同費도 현재보다 3억 원이 만코 米國도 현재보다 1억 원이 만혔는 그런 현상을 연출할 것을 생각하면… <별건곤 29, 21>

다. 小作權 保障 問題에 잇서서 항쟁하는 때마다는 성공이 만엇는 반면에 실패도 잇었다. <삼천리 3.5, 34>

12) 이 표에 제시된 값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용례 중 ‘-엇느’의 예는 포함시키지 않고 ‘-엇느’의 예만 포함시킨 것이다.

13)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엇-’의 과거시제 의미가 본격적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증명 하려면 형용사나 ‘이다’에 ‘-엇느’가 결합한 용례가 증가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동사에 결합할 때 ‘과거’를 뜻하는 용례의 증가 추이도 계량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엇느’가 쓰인 한 문장만 봐서는 상태지속상인지 과거시제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들이 많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 전반의 내용을 파악해야 했다. 이 논문은 특정 형태의 출현 빈도나 품사별 빈도는 제시하였지만 더 심층적인 의미 분석을 토대로 한 계량적 정보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위의 예에서 ‘-었는’은 (9가)의 ‘깊다’, (9나)의 ‘맑다’, (9다)의 ‘맑다’에 결합돼 형용사가 이끄는 관형절의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한편 (10)은 ‘이다’에 ‘-었는’이 결합된 예이다.

(10)가. 그러나 朝鮮無產者가 近年과 가티 日本에 가기를 始한 것이 … 그의 가진 바 처참한 환경에서 나온 迫不得已의 사실이엇는 이상… <개벽 49, 21>

나. 국경에 독립군의 횡행, 국내에 소작운동의 왕성. 이것은 甲子 1년을 통한 중대한 현상이엇는 동시에, 역시 1월 중의 중대 현상이엇는 것을 니줄 수가 업다. <개벽 54, 6>

다. 本來 朝鮮에서 이 파시즘文學을 指摘한 것은 누구도 아니고 내 自身이엇는 까닭에 不得已 여기서도 一定한 責任을 지지 아를 수 없게 되엿읍니다. <삼천리 8.6, 244>

(10가), (10나), (10다)는 모두 ‘이다’에 ‘-었는’이 결합된 예이고 이들 예에서 ‘-었는’은 관형절의 과거시제를 나타낸다.

‘-어 잇-’에서 ‘-었-’으로 형태가 정착된 시점은 17세기경이었지만 ‘-었-’의 상적 의미보다 시제적 의미가 강해진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19세기 이후였다. 근대국어에서는 아직 ‘-었-’의 분포가 동사 뒤로 제한되다가 19세기를 지나면서부터 형용사나 ‘이다’에 두루 결합됐기 때문이다. 최동주(2002나: 511-512), 김유범(2007: 165-166) 등에서도 이전 시기에는 어간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던 ‘-었-’이 19세기에 들어서부터 ‘-시-’에 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무렵부터 ‘-었-’의 과거시제적인 특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었-’이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정착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었는’의 소멸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더 나아가 현대국어 서술구성과 관형구성의 시제 체계가 이원화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앞서 ‘-었는’의 ‘-었느-’가 ‘-었-’의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었-’의 과도기적 형태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서술구성에서 ‘-었느-’는 ‘-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데 반해 관형구성에서 ‘-었느-’는 ‘-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술구성을 살펴보면, 20세기 전반기에 ‘먹으니(먹+ $\emptyset_2$ +으니)’는 과거시제가 되면 ‘먹었으니(먹+었+으니)’ 또는 ‘먹었느니(먹+었느+니)’로 쓸 수 있었다. 이때 ‘- $\emptyset_2$ -’는 전자에서는 ‘-었-’과 대립했고 후자에서는 ‘-었느-’와 대립했다.

(11)은 20세기 전반기에 서술구성에 쓰인 ‘-엇느-’의 예이다.

(11) 가. 남자는 동족의 무장한 부대가 다른 여자 잇는 부락을 습격하여 무력으로써 여자를 약탈하였다가 안해를 삼엇느니 이것을 「掠奪婚」時代라 한다. <삼천리 3.11, 104>

나. 사탕 사 오고 고기 사 온다고 나간 엄마가 왜 죽엇느냐고!? <동광 9, 24>
 다. …나의 직업의 대상이 그와 가치 생기 잇는 것들뿐이었느니만큼 스스로 만족하고 윤택함을 늦겨 왓서스며… <별건곤 25, 54>

(11가)의 ‘삼엇느니’는 오늘날 ‘삼았으니’로 쓰이고 (11나)의 ‘죽엇느냐고’는 오늘날 ‘죽었냐고’로 쓰이고 (11다)의 ‘~는 것들뿐이었느니만큼’은 오늘날 ‘~는 것들뿐이었으니만큼’으로 쓰인다.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서술구성에서 ‘-엇느-’의 쓰임이 지금보다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예에 쓰인 ‘-엇느-’는 후대로 오며 사라졌고 결국 서술구성에서는 ‘-엇-’과 ‘-∅₂-’의 대립 체계가 정착됐다. 2절에서 ‘-엇느-’의 소멸 원인으로 ‘-엇-’과 ‘-느-’의 의미 충돌을 살펴봤는데 그에 더해 ‘-엇느-’가 ‘-엇-’과 기능적으로 차별성을 갖지 않으면서 분포는 훨씬 좁아드는 점도 소멸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형구성에서는 애초부터 ‘-엇-’과 ‘-∅₂-’의 대립이 성립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먹엇은(먹+*엇+은)’은 쓰이지 않았고 ‘먹은(먹+∅₂+은)’과 ‘먹엇는(먹+엇느+은)’만 쓰였기 때문이다. 서술구성에서는 ‘-∅₂-’가 ‘-엇-’과 대립을 이루었고 ‘-엇-’이 ‘-엇느-’로 실현되기도 했지만 관형구성에서는 ‘-엇-’과 ‘-∅₂-’의 대립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채 ‘-엇느-’가 쓰였던 것이다. 과도기적 형태인 ‘-엇느-’는 결국 형태소로서의 자격을 잃게 됐는데 그 결과 서술구성에서는 ‘-엇-’과 ‘-∅₂-’의 대립으로, 관형구성에서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느-’와 ‘-∅₁-’의 대립으로 시제를 표시하게 된 것이다.

이 절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관형구성에서는 원래부터 ‘-엇-’과 ‘-∅₂-’의 대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엇느-’는 그 자체로서 발달된 문법 형태가 아니라 ‘-엇-’의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형태인데 관형구성에서는 시제 형태소 자리에 ‘-엇-’은 쓰이지 않았고 ‘-엇느-’만 쓰였던 것이다. 이는 ‘-엇-’의 문법화가 본래 서술구성에서 진행된 변화이며 관형구성에 나타난 ‘-엇느-’는 서술구성에서의 쓰임에 유추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4. 결론

지금까지 ‘-었는’의 쓰임을 통시적으로 검토해 그 발생 원인과 발달 과정 그리고 소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서술구성에서의 쓰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관형구성에서의 쓰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결과적으로 볼 때 현대국어 관형구성의 시제 체계는 중세국어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은 반면 서술구성의 시제 체계는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역사자료에 나타난 ‘-었는’의 용례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었는’의 소멸 과정을 통해 현대국어 시제 체계가 서술구성과 관형구성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었는’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미 사라진 것으로 지적돼 왔지만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었는’이 1920~30년대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음을 시사해 준다. ‘-었는’의 형태가 20세기의 어느 시기까지 나타났는지, ‘-었는’의 쓰임이 축소되면서 그 분포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은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점으로 후고를 기약한다. 이 연구를 통해 20세기 전반기 국어 문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 고 논 제

- 고광모(2004), 「과거시제 어미 ‘-었-’의 형성에 대하여 -이설들을 비판하고 정설을 재확인함-」, 『형태론』 6.2, 367-375.
- 고영근(1998),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보정판), 탑출판사.
- 고영근(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국립국어원(2007), 『연구 보고서: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특수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서상규), 국립국어원.
- 김유범(2007), 『국어 문법형태소의 역사적 이해』, 박이정.
- 남기심(1978),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국어학총서 66), 국어학회.
- 박진호(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223-238.

- 안병희(1967), 「한국어발달사 (중):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V: 언어·문학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65-261.
- 안예리(2013),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대중종합지 『삼천리 (1929~1942)』의 말뭉치 언어학적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갑(1981), 「15세기 국어의 상태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 174, 401-422.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신정판), 태학사.
- 이승옥(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용(1992), 「18세기 국어의 時相에 관한 고찰 -‘-엇-’, ‘-어 잇-’, ‘-어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지』 79-80, 91-122.
- 이현희(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143-163.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87-138.
- 임동훈(2010),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3-44.
- 전후민(2011), 「‘-느-’의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느-’의 이형태 교체를 중심으로」, 『형태론』 13.2, 311-333.
- 최동주(2002가), 「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어문학』 76, 119-152.
- 최동주(2002나),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언어』 27.3, 507-534.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한동완(1986), 「과거 시제 ‘았’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217-248.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국어학총서 24), 국어학회.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79), 「17세기 국어 때때김법 연구」, 『한글』 164, 571-627.
- 허웅(1981), 「18세기 국어 때때김법 연구」, 『애산학보』 1, 1-23.
- 허웅(1982), 「19세기 국어 때때김법 연구」, 『한글』 177, 3-38.
- 허웅(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An, Yelee. 2013. Diachronic analysis of *-esnun*, *Morphology* 15.2. 170-185.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mergence and extinction of *-esnun*. It has been reported that *-esnun* disappeared around the seventeenth century, but its usages were still found in early twentieth century texts. The form *-esna-* in *-esnun*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e is-* and *-na-*, which were a state-durative aspect marker and a present tense marker respectively. As *-es-* developed into a past tense marker around the nineteenth century, the meaning of *-es-* and *-na-* became incompatible and the use of *-esna-* gradually faded consequently. The form *-esna-* was replaced by *-es-* and the tense was manifested by the contrast system of *-es-* and *-Ø-*. In modifying constructions, however, the same shift could not happen since the contrast between *-es-* and *-Ø-* did not exist. Therefore, the tense system of

modifying constructions remained unchanged retaining the contrast between *-na-* and *-Ø-*.

Key words: *-essnun*, *-essnu-*, *-ess-*, tense, adnominal clause

안예리(安禮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사업단 박사 후 연구원

121-808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대푸르지오시티 1903호

전화: 070-4082-2908

E-mail: yelee.a@gmail.com

(2013. 9. 30. 원고 받고, 2013. 10. 22. 심사하고, 2013. 11. 22. 실기로 함)

